

전남대학교 범시·도민 책임기운동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2015년 한 책 '1그램의 용기' 선정



망설이는 마음에 보내는 1g의 용기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공짜라고. 백 번 맞는 말 아닌가? 사랑, 우정, 의리, 신뢰 등은 천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다. 그 대신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눈만 돌리면 마주치는 자연도 마찬가지다. 돈이 들지 않지만 순순하고 감사하며 누리면 그 아름다운 것들은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 ('1그램의 용기' 중에서)



한비아

간김구호 현장 등 크고 작은 경험 담아 도전이나 멈추느냐 차이 어느 편으로 '1그램'을 보태느냐에 달려

답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행동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용기는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고강조한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 '해야 할 일을 할 자신감', '헤쳐서 안 될 일을 하지 않을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멈추느냐, 그리고 시도해 보느냐의 차이는, 어느 편으로 '1그램'을 보태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번 한책 선정 투표에는 온라인 6222명과 광주·전남 지역 30여 곳에 설치된 투표함을 통한 직접투표 1만7231명 등 총 2만3453명의 시·도민이 참여했다.

투표 대상 후보로서는 '한책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그램의 용기'(한비아) ▲'그림의 힘'(김선현) ▲'매구 할매'(송은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오연호) ▲'인간이 그리는 무늬'(최진석) 등 5권이였다.

전남대학교는 이날 선포식에 이어 작가 초청 한책 특 콘서트(9월), 사진 및 서평 공모전(8월, 10월), 토론회(12월) 등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서른셋, 승진을 앞두고 어릴 때부터 계획했던 '육로 세계일주'를 떠났다. 마흔둘, 국제 NGO 월드비전에 들어가 긴급구호 팀장으로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에서 일했다. 마흔아홉,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꿈을 넘어 우리의 꿈을 꿀 수 있기를 꿈꾸며 세계시민학교를 열었다.

십둘, 국제구호 현장과 정책을 잇기 위해 유학을 떠나 미국 터프츠대학교 '플래저 스쿨'에서 인도적 지원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귀국해 이화여대 초빙교수로 있으며 1년의 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머지 반은 해외 현장에서 국제구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대학생이 존경하는 인물 1위', '평화를 만드는 100인'으로 뽑혔고 2014년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되었던 사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의 저자 한비아(57) 씨를 수식하는 말이다. 그러나 가장 그녀를 잘 설명하는 말은 국제구호 전문가라는 직함이다. 세계의 열악한 현장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가장 그녀다운 이미지다.

한비아의 신작 에세이 '1그램의 용기'(푸른숲)가 전남대학교가 진행하는 범시·도민 책임기운동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의 2015년 한책으로 선정됐다. 전남대학교는 8일 오후 열린 제63주년 개교기념식에서 '2015 한책'으로 '1그램의 용기'를 선정했다고 선포했다.

'1그램의 용기'는 '그건, 사랑이었네'(푸른숲)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책으로, 김구호 현장과 백두대간 종주길, 다

른 나라의 다양한 현장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경험과 깨달음을 담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숨겨진 가치와 드러나지 않은 진실, 국제구호를 둘러싸고 열광이 벌이는 갈등과 다툼 등을



전남대학교는 8일 오후 열린 제63주년 개교 기념식에서 올해의 '광주전남 한책'으로 한비아의 '1그램의 용기'를 선정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전남대 제공>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이 뮤지컬로 탄생합니다



9일 오전 서울 흥인동 추모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아리랑' 기자회견에서 제작진 및 출연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정래 '아리랑' 뮤지컬로 재탄생

신시컴퍼니 제작

다음달 16일부터 공연

"뮤지컬로 다른 생명을 얻은 '아리랑'으로 우리 국민이 응집하고 단결할 기회를 소망합니다."

9일 서울 중구 추모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아리랑'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아리랑'의 원작자인 소설가 조정래는 "아리랑이 더 좋은 작품으로 탄생해 이 땅을 대표하는 뮤지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1990~1995년 6년여간 연재한 끝에 완성한 '아리랑'은 일제 침략부터 해방까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 이념사를 다룬 대서사시다. 그간 여러 차례 원작을 영화나 드라마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원고지 2

만매 분량의 대작을 극화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혀 매번 좌절되고 말았다.

조정래 작가는 "우리는 5000년 세월 동안 거의 1000번의 크고 작은 외침을 당했다. 그 외침의 그트머리에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 굴욕과 치욕, 저항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 새 삶의 방향타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 작품이 뮤지컬로 나온다는 것은 망각의 땅을 뜯어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일과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지울 수도 없고 지워주어도 안된다. 역사는 지나버린 과거가 아니고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며 "뮤지컬 '아리랑'으로 우리 국민이 응집하고 단결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신시컴퍼니가 8년 만에 선보이는 대

형 창작 뮤지컬 '아리랑'은 다음달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기획·제작에만 3년여가 걸린 뮤지컬은 감곡대 가족사를 중심으로 재편, 우리 민족의 저항과 투쟁 정신과 함께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을 그린다. 연출은 광주 출신으로 5월 연극 '푸르는 날'을 연출한 고선웅씨가 맡았으며 서범석·안재욱·윤공주·김성녀 등 초화 출연진이 뒤를 받친다. 곡 작업은 '화선 김홍도' '템페스트' 김대성, 의상은 '군도' '상의원'의 조상경이 맡았다.

박명성 신시 대표 프로듀서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우리의 아픈 과거를 한번은 매듭지어야 한다.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리랑'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병훈 초청 '실크로드의 불교미술' 강연

'너의 목소리가 보여'

오늘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문화재단, 수화통역교육 참가자 모집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10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실크로드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강연은 특별전 '아시아의 불교미술-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8월2일까지)와 연계,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는 동서 문물 교류의 핵심 지역이었던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제된 과정과 그 속에서 꽃피운 중앙아시아의 불교미술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문의 062-570-7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수화통역교육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날 광주시 남구청이 진행한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화통역사 성현정 씨가 강사로 나서 마음을 바탕으로 한 기초 입문단계의 수화교육부터 간단한 수화 대화를 교육한다. 오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총 21회 열린다. 특히 오는 7월 1차 필기, 10월 2차 실기, 12월 3차 연수 등 1년에 한번 진행되는 (사)한국농아인협회 주최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670-796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저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용봉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참고 230㎡ 임대 보3천만 /월170만(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송정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070㎡ 매 6억5천만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 010-5536-0382

퇴직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부동산 고창에 집지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